

동지가 금속노조다!

대전충북지부

4호

발행인 : 김정태
발행일 : 2020년 5월 25일(월요일)
발행처 :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교육선전부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폐기하라!

노조할 권리 가로막는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노동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고 확실한 방법은 노동조합 활동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노동자들에게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다. 헌법에 따라 노동자는 누구든지 노조를 만들고, 교섭하고, 단체행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가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가로막고 있다.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조합원 수가 적은 소수노조는 교섭할 권리를 빼앗긴다.

10년 동안 피해본 조합원들!

우리 지부만 해도 엔텍, 콘티넨탈, 보쉬전장, 한국타이어, 현대성우메탈, 대양판지 등 많은 복수노조 사업장 조합원들이 이 제도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다. 2011년 시행된 후 10년 동안 교섭 한 번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있다. 물론 끈질긴 현장 투쟁을 통해서 활동을 펼치고 있지만,

교섭권이 없어서 사측과 협의 한 번 하기 어렵다.

우리 지부를 비롯해 많은 단위에서 10년 동안 이런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했다. 사용자 입맛대로 어용노조를 만들고 민주노조 교섭권을 빼앗아서 약화시키는 일은 10년째 똑같이 반복되고 있다. 가장 최근에도 대양판지가 어용노조를 2개나 만들면서 민주노조 활동을 방해하고 있다.

모든 노동자에게 노조할 권리를!

금속노조는 복수노조 사업장의 온전한 노동3권을 위해서 교섭창구 단일화제도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민주노총은 복수노조 사업장과 간접고용 노동자를 중심으로 노조할 권리 보장을 위한 투쟁을 만들고 있다. 민주노총은 5월 27일(수) 14시 세종시 고용노동부 앞에서 결의대회를 연다.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폐기와 간접고용노동자의 원청 교섭 쟁취를 위해 다시 한발 내딛자.

일진자본 손배가압류 철회하라!

일진다이아몬드지회 전면파업이 335일차를 맞고 있다. 일진 자본은 1년 넘도록 교섭을 질질 끌며 일방적인 양보와 희생만을 강요했다. 조합원들에게 고소 고발, 손배가압류까지 하며 악질자본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줬다. 일진자본은 1년 동안 이윤을 포기하면서도 노조를 깨겠다는 일념 뿐이었다.

지회는 단체협약과 임금인상에 대해 상당부분 양보하면서까지 원만히 해결하고자 노력했다. 그러나 일진자본은 끝까지 손배가압류를 철회할 수 없다며 버티고 있다. 임단협 합의 이후에도 끝까지 노조를 깨겠다는 것이다.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면서 '노조혐오'로 기업을 운영하는 일진 자본의 만행은 결코 계속될 수 없다. 손배가압류를 앞세운 노조파괴에 대해 금속노조와 민주노총의 투쟁은 계속될 것이다.

* 주요 일정 *

■ 4차 중앙교섭

- 5/26(화) 14:00, 금속노조 회의실

■ 노조할권리 쟁취 결의대회

- 5/27(수) 14:00, 세종 고용노동부

■ 교섭위원 공동투쟁

- 충북 : 5/28(목) 11:30, 세종 환경부_SK하이닉스 LNG발전소 부동의 축구 결의대회

- 대전 : 5/28(목) 12:00, 미건테크노월드_차별철폐대행진 선전전

■ 3차 지부교섭

- 5/28(목) 15:00, 한국JCC